

꿈과 낭만의 매르헨街道

김 윤 기

●「그림」형제의 전설수집여행

독일의 북부, 브레멘에서 하나우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약 6백킬로미터의 길을 매르헨(Märchen)街道라고 부른다. 어찌보면 그냥 한 나라의 시골길처럼 평범한 이 길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것은 무슨 연고일까. 여기에는 딱 두사람, 「그림」형제의 존재 때문이다.

그림 형제는 쌍둥이는 아니다. 형 J.Grim은 1785년, 동생 W.Grim은 1786년, 1년 터울로 태어났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쌍둥이보다도 더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두 형제는 하나우에서 태어나 슈타이나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함께 마르부르그大學을 졸업한뒤 카셀에서 같은 시립도서관에 취직, 괴팅겐에선 대학교수생활을 했고 소

위 「7교수사건」이란 묘한 사건에 휩쓸려 대학에서 함께 파면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두 형제는 같은 인생만을 산 것이 아니다. 둘은 독일 유수의 언어학자이며, 동화수집가이며, 수없이 많은 책을 공동 저술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이야기」는 140개국에서 출판된 그들의 대표저서다.

그림 형제는 동화작가는 아니다. 동화수집가다. 그들의 작품은 창작이 아니라 시골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민화(民話)와 전설을 동화로 옮겨 놓은것 뿐이다. 이들이 찾아낸 명작동화 중에는 「잠자는 숲속의 美女」와 「마술 피리」등이 있다.

매르헨街道에는 64개의 작은 도시들이 있다. 이 도시들은 그림 형제들이 숨겨진 전설을 찾아 헤맨 곳들이다. 매르헨街道는 어디를 가든 그림 형제의 발자국과 숨소리와 체취가 남아 있다.

매르헨이란 말의 뜻도 「공상적 구전(口傳)의 짧은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다.

매르헨街道의 관광은 그림 형제를 모르면 처음부터 가지않음만 못하다.

●「그림」형제의 출생지, 하나우

하나우(Hanau)는 그림 형제가 태어난 곳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20분 걸리는 중부독일의 작은 도시다. 그러나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구시가지의 한복판에 있는 시청사는 1537년에 건립되었고, 영주(領主) 필립레인하드가 살던 필립슈르에城은 1710년에 세워

진 고성이다. 이 성은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하나우는 기차길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구시가, 서쪽은 신시가다. 구시가의 한 복판 마르크트廣場에 그림 형제의 동상이 있다.

이 도시는 옛날부터 금은세공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시내에 있는 금은세공박물관에서는 옛날과 같은 모습의 작업광경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료로 보여준다.

●마리오네프 극장에서선 그림 동화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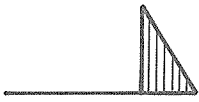
슈타이나우(Steinau)는 하나우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조용한 시골 도시다. 이곳은 그림 형제가 어린시절을 보낸 곳이다. 그들이 살던 집 Amtshaus는 1562년에 세워진 낡은 집인데, 현재 박물관이 되었다.

또 부근에는「그림스쿨」이 있다. 그림형제가 다니던 소학교다. 이 학교 복도에는 마르헨그림이 잔뜩 걸려있다. 시내에는 중세때 건립된 슈타이나우城이 미술관이 되어 현존하고 있는데, 옛날 마구간 자리가 마리오네프 극장으로 개조되어 그림 동화극을 상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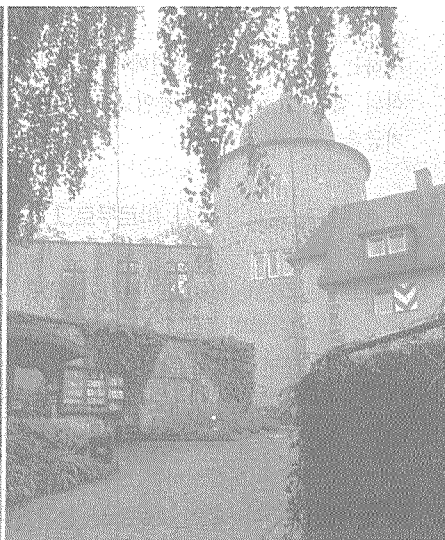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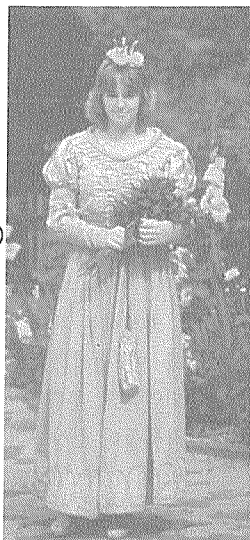
그림 형제가 세례를 받은 카토리느교회, 유치원, 묘지 등도 있다.

●빨간수건 쓴 백설요정의 알스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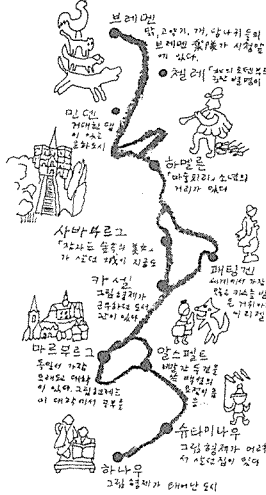
알스펠트(Alsfeld)는 빨간 수건을 쓴 백설요정의 요정이 춤추는 도시다. 지금도 저녁 해질 무렵 교회(발푸기스)의 종소리가 울리면 눈보라속에서 빨간 두건의 요정이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약 10분간 춤을 춘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있던 사바부르크성과 들장미 아가씨(左) 등근 탑의 꼭대기 층에 들장미아가씨의 방이 있었다. 지금은 고성호텔이 되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마르헨 街道



마르헨 街道

15세기 때 지은 목조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한복판에 우뚝 성이 서있고, 성을 중심으로 교회·대학·시청·박물관과 주택들이 둘러싸고 있다. 성의 남쪽 기슭이 구시가지다.

성의 동쪽 강변에 엘리자벳 교회(聖녀)가 있다. 독일 최초의 고딕식 건축이라는 이 교회는 마르부르크 태수(太守) 콘라트가 1283년에 지은 역사 오랜 교회다. 당시 헝가리공주가 시집와서 일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했는데, 이공주가 후일 성녀(聖女)가 된 엘리자벳이다.

마르부르크가 성지가 된 것도, 그리고 종교도시가 된 것도 엘리자벳 때문이다. 「마그부르크의 보물」로도 불리우는 이 교회안에 유명한 「엘리자벳 황금관(棺)」이 있다.

박물관도 많은 도시다. 대학문화사박물관, 대학모형미술박물관도 한번쯤 꼭 볼만하다.

● 그림박물관이 있는 카셀

카셀(Kassel)은 예술도시다. 그림 형제는 대학졸업 후 이곳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취직하게 되는데, 도서관 근무가 계기가 되어 구전 민화수집에 나서게 된다.

카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 옛 윌헬름스회예성(城)이 현 국립미술관이 되었는데, 루벤스, 램브란트 등 저명 화가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성은 윌헬름2세의 여름 거성(居城)으로 19세기초에 건립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새 성이다.

알스펠트는 기둥이 까만 목조주택이 많은 예쁜 도시다. 도시 한복판의 시청사는 「후기 고딕식 건축의 진주」라는 평을 듣는 16세기 건축물로, 동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그림같은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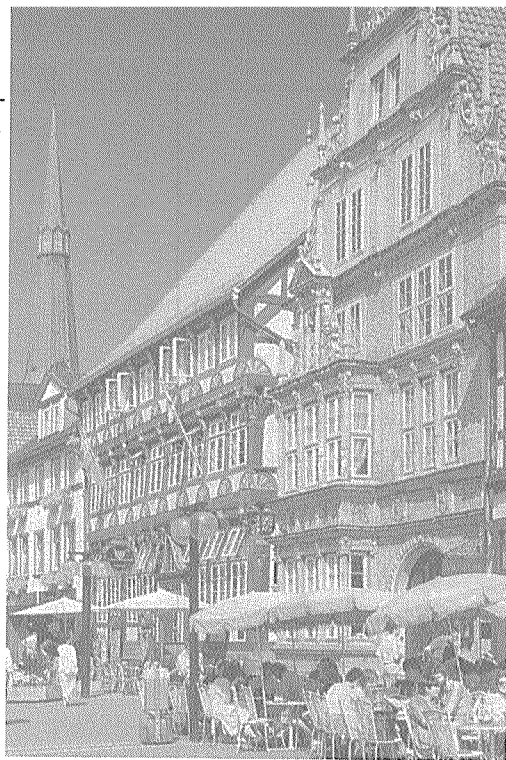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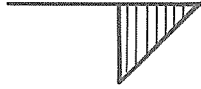
시내에는 옛날 포도주판매장이었던 바인 하우스, 13세기 바실리카(式)으로 지은 발푸르기스(聖) 교회, 민속의상·주택·수공예품을 전시하는 향토박물관, 1565년에 세워진 「결혼식의 집(Hochzeithaus)」 등이 있다. 이 집은 지금은 카페가 되었다.

● 대학과 종교의 도시, 마르부르크

마르부르크(Marburg)는 역사가 오랜 대학도시이기도 하며 종교도시이기도 하다. 그림 형제가 다닌 마르부르크대학은 1522년에 개교된 독일서도 가장 오랜 대학중 하나이며, 도서관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 시민 5명중 1명은 대학생이다.

도시는 언덕이 많고, 고풍스런 분위기다.

「마슬피리」 전설의 고향,
하멜른의 시가지.



성 앞쪽으로 검은 숲이 펼쳐져 있다.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성한 숲이다. 이 숲의 건너쪽에 헤라클레스 탑이 있다. 카셀의 심벌이라는 헬라쿨레스 일대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공폭포도 있다. 지금은 폐허가 다된 기사성(騎士城)도 숲속에 있다. 여름에는 이 성에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림형제 박물관에는 그림·가구·편지와 동화집 초판등이 전시되고 있고, 이밖에도 자연과학박물관, 미술관, 오랑제리城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벽지박물관(Tapeten Museum)이 있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리젤 아가씨

괴팅겐(Göttingen)은 「거위아가씨 리젤」의 고향이다. 리젤 아가씨像은 시청앞에 있는데, 상상외로 작다.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도 작고, 코펜하겐의 인어아가씨도 작다. 유명값에 비해 너무 작는데 놀란다.

그러나 리젤 아가씨는 행복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아가씨이기 때문

이다. 새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곳에 와서 감사의 키스를 했는데, 이것이 연유가 되어 세계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모두 키스를 선물하게 되었다.

그림 형제는 이곳에서 대학교수생활을 했다. 괴팅겐大學은 1734년에 게오르규2세가 설립한 역사오랜 대학인데, 노벨상 수상자를 30명이나 배출한 명문이다. 14학부 28,000명의 학생을 가진 이 대학에는 「매르헨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가 부설되어 있는데, 이곳서는 21세기에 완성목표로 백과사전을 발간 중이다.

인구는 13만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지만 자전거가 많다.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13세기에 건립된 시청사(현재는 전시관·영빈관이 되었음), 중세때의 쾨요하네교회, 그리고 물레타의 집, 아벨·보르네만의 집,

야곱교회등이 이 도시 명소다.

●「잠자는 숲속의 美女」의 고향은 사바부르그였다

사바부르그(Sababurg)에는 「잠자는 숲속의 美女」가 살던 성이 있다. 지금은 호텔(古城Hotel)이 되어 누구든 예약하면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는데(전화05678-1052), 잠든 들장미 아가씨가 있던 방도 이 성안에 있다. 그러나 이 아가씨의 방에는 욕탕이 없다. 욕탕이 없는 방은 값이 싸다.

디즈니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성이 바로 사바부르그城이다. 이 성은 원래 헛센公國의 수렵관이었다. 수렵에 쓰던 나팔이 성관의 복도에 걸려 있다.(이 나팔은 독일 체신부의 로고가 되기도 했다.) 성 주변에는 계곡과 울창한 숲이 있어 지형을 이용하여 두령을 파괴, 또 성벽을 쌓았다.

●「마술피리」의 하멜른

하멜른(Hameln)은 「마술피리」의 고향이다. 13세기 쥐떼들의 극성으로 온 시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피리부는 사나이가 나타나, 쥐를 모두 강속으로 데리고 들어간 옛 이야기(實話라고 함)가 있다.

여름에는 시청앞 광장에 일요일 낮12시 피리부는 어린이를 따라가는 쥐떼들의 행진을 인형극으로 보여준다. 시내에는 「쥐잡이 사나이의 집(Rattenfangerhaus)」이 있는데, 검은 석조건물인 집의 1층은 레스토랑이다.

이 집 메뉴중엔 「쥐 궁둥이 요리」가 있는데, 쥐고기는 아니고 돼지고기를 가늘게 썰어서 만든 요리다. 쥐 모양을 한 과자도 있다. 17세기초 건립된 결혼식장은 시민축제장으로 활용되는데, 지금도 결혼신고는 이곳에서 제출 한다.

건물벽에 많은 종이 걸려 있고, 매일 2번(8:30, 11:05)종소리 연주가 있고, 오후에는 3번 벽 인형극장이 상연된다.

●동물들의 「브레멘樂隊」

브레멘(Bremen)은 10세기에 개항된 독일서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다. 웨서江 안쪽 65킬로지점에 부두가 있다. 14세기때는 한사동맹의 맹주도시로 크게 번영했고, 지금도 60만의 인구를 갖는 큰 내륙항으로, 시민의 40%는 항만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지 마르크트광장에는 시청사, 페트리성당, 어음교환소 등이 집결 해있다.

이 도시의 명물은 「브레멘 樂隊」다. 닭, 고양이, 개, 당나귀 등으로 구성된 동물 악대다. 마르크트 광장에는 무등을 타고 올라선 네 마리 동물의 동상이 있다.

이밖에도 매르헨街道에는 「쇠수염 박사」의 마을 문덴(Münden) 「북쪽의 로텐부르그」란 별명을 가진 첼레(Celle), 거대한 운하도시 민덴(Minden), 말의 도시 웨르덴(Verden) 등이 있다. ㉗

〈필자= 해외의학교류회장. 최신행정보 발행인〉